

086 AI 리터러시

AI Literacy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인과 조직의 역량

- AI의 원리와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해석·활용할 수 있는 인지·실천적 능력
- 기술 이해를 넘어 AI와 함께 작동하는 사회에서 합리적 판단·참여를 가능케 하는 디지털 시민 역량

● AI 리터러시란?

AI 리터러시는 AI의 작동 원리와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도구 조작 능력을 넘어, AI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생성하는지 이해하고 결과의 의미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력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AI 리터러시는 'AI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AI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역량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AI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기술과 협력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민적 기본 소양으로 작용합니다.

● AI 리터러시의 중요성

AI 리터러시는 기술 활용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기반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오류·편향·허위정보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를 구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개인의 판단과 사회적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리터러시는 단순한 학습 주제가 아니라 교육·직무·정책 전반에 걸친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특히 리터러시 수준의 격차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AI 리터러시의 영향과 정책

AI 리터러시의 확산은 기술 발전 속도에 사회가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리터러시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정보의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사회는 AI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리터러시는 허위정보 확산과 기술 불신을 심화시켜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공공 인식 확산을 병행하는 다층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데이터 이해와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실무 중심의 활용 교육이 필요합니다. 정부·기업·언론은 협력해 시민 대상 프로그램과 표준화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지역·세대별 격차를 줄이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AI 리터러시는 기술 혁신을 사회 전체가 신뢰 속에 수용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인프라로 기능합니다.



출처 : freepik